

노래로 기억하라.

본문 신 31 : 30 - 32 : 14절

David HONG

1. 전체배경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들을 쫓아갈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경고로 하여 후대에 남겨주는 노래를 만들어 그것을 반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눈 높이에선 우리들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2. 해석 & 적용

1) 내 말을 귀담아 들을 지어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여호와와 이름과 교훈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생명수와 같은 말씀, 단비와 같은 말씀으로 이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대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은 어떠합니까? 말씀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삶에서 들리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진정한 위기입니다.

2) 의로우신 하나님과 비뚤어진 인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7가지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성품 7가지를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말은 결국,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은 곧 비뚤어진 삶으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등대이며, 표준이며 살 길입니다. 오늘 내가 그토록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 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없이는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 역사를 기억하라.

모세는 다시 한번 이 노래 속에서도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여 들려줍니다. 지난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전히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들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고, 지난 과거에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삶에서 여전한 불순종과 과거의 나의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는 것도 참으로 유익합니다.

다시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순종만이 살 길 이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